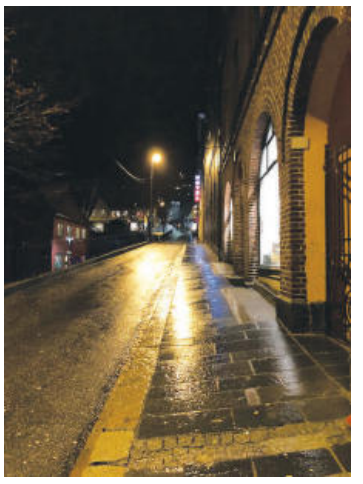
24. 12월 20일 아침. 아니, 몇 시라고?

거센 빗소리에 퍼뜩 잠이 깼다. 깜깜하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베르겐 기차역에 갔던 생각이 났고, 잠시 둘러 보고 나와 오던 길을 거슬러 다시 호텔로 돌아온 기억이 났다. 오는 길에 노르웨이 편의점, 침구 가게, 핫도그 가게 등을 구경하면서 왔다. 호텔 방으로 올라 와서는 샤워를 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음악도 들으면서 혼자 잘 놀았는데 어느 새 잠이 들었나?

한 두어 시간 잤을까? 어쨌든 잘 쉬어야 한다. 내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노르웨이 요약' 을 해야 하니까 체력 소모가 많을 것이다. 푹 자고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한다. 6시 30분에 깨우도록 핸드폰에 설정해 놓았다. 그건 그렇고 지금 몇 신데 이렇게 비가 쏟아 붓는 것일까? 침대 옆 스탠드에 놓아 둔 핸드폰을 더듬더듬 찾아 들자 환하게 불이 들어온다. 7시 37분! 나는 기겁을 하고 침대에서 튀어 오르듯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침 7시 37분이란 말인가? 왜 핸드폰이 안 울렸지? 나는 설정으로 들어가 확인했다. 맙소사, 저녁 6시 30분으로 설정해 놓았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이를 닦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방수코트까지 입은 다음 '노르웨이 요약' 티켓은 코트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검은 우산을 들고 방을 나왔다. 아침을 먹고 가려 했는데 시간이 없다. 잘못하면 하루 종일 굶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프런트로 가는 길에 나오는 호텔 조식에 들러 진열되어 있는 조그만 빵 두 개를 코트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프런트에 도착해 밖을 내다 보니 완전히 깜깜하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베르겐에 도착한 후로 비가 계속 왔어도 보슬비나 가랑비 정도였는데 오늘은 폭우다. 나는 빗속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프런트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다. 8시 15분까지 베르겐 기차역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걸어 가라고 한다. 기가 막혀서 이 빗속에 어떻게 걸어 가냐고 하자 나를 의아한 듯 보면서 말한다. "마담, 택시가 오는데 5분 정도 걸릴 것이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30분 걸릴 겁니다. 기차를 놓치실 거에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걸어가시면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베르겐 사람들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호텔을 나섰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로 폭우가 사정없이 몰아친다. 어제 기차역 사전답사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처음 가는 길을 이런 폭우 속에 나섰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제 가본대로 킹 오스카 게이트 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가면 된다. 나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깜깜한 길을 서둘러 걸어 갔다.

폭우가 쏟아져도 베르겐 사람들은 모두 바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부모들이 조그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광경도 보았다. 다 걸어 가는데, 간혹 세그웨이를 타고 가기도 한다. 어떤 꼬마는 동생의 유모차에 매달려 가기도 했다. 모두 비옷과 외투로 중무장 했다. 베르겐의 비 오는 아침이다. 나는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어제 지나쳤던 공사 현장에 벌써 인부들이 빗속에 일을 하고 있었다. 어제 가 보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 길을 막아 놓은 이 상황에 당황했을 것이다.

스트룀가튼 내리막 길에 들어서니 드디어 기차역이 보인다. 한숨이 나오면서 안심이 되었다. 퍼 붓는 빗속에 어둠을 뚫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 온 것은 난생처음인 것 같다. 일년 내내 비 오는 베르겐의 일상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기차역 정문을 향해 달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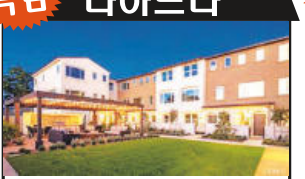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Lic #762505
Zip(집)
쿨링·히팅

에어컨
전기
플러밍
히팅
714.293.9827
714.393.3691

플러튼 | 세리토스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부에나팍 | 라미라다 | 라하브라
REDPOINT REALTY
17년 탑에이전트 경험으로 잘 팔고 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Since 2004~)
레드포인트 부동산 명예 부사장

독점 부에나팍 타운홈

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장 근접, 하이실링
나무마루, 나무가 우거진 페티오
써니힐 하이, 렌트 ($2,700)
잘 나가는 투자용으로도
좋은 매물, 마켓에 없는 집
$599,999
독점 라하브라

2019년생 예쁜 새단지,
2,000sf, 방4 화3.5
업그레이드 많이한 새 집,
좋은 위치
$729,000
독점 사이프러스

방4 화2.5 단층집, Lot 7,500
뉴페인트, 나무 마루, 업그레이드
많이 한 옥스포드 하이 근접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러스 하이
$659,000
독점 부에나팍 창고 리스

8,800SF
5FWY와 Artesia Blvd가
만나는 상권 최고
사무실도 겸함
$11,000
독점 다이아몬드 바

방 4 화 2 리모델한 단층집
넓은 뒷마당 밝고 환한 남향집
리세스라잇,크라운 몰딩
좋은 학군
$789,999
플러튼

방5 화3.5 플러튼 요지
아래층 매스터 베드룸
넓은 뒷마당, 손볼 것 없는 집
최고 학군
$910,000
플러튼

게이트 단지, 방4 화2.5
1998년생, 넓은 부엌, 마켓
샤핑센터 근접
단지 내 놀이터, 수영장
$747,000
라미라다

방3 화2 플러튼 가까운 조용한
단지내 타운홈, 하이실링
아담한 페티오
리모델 다 한 예쁜집
$557,000
카니 정 | DRE 01433245
714-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사이프러스 : $465,000 방 2 화 1 탱글우드 타운홈, 단충, 사이프러스 요지,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러스 하이
부에나팍 : $670,000 방 3 화 2.5 2015년생, 건평 1,920 sf, 소스몰 건너편 좋은 위치
부에나팍 : $520,000 방 3 화 1.5 H Mart 옆 타운홈, 리모델 End Unit, 써니힐 하이, 렌트 잘 나가는 집
세리토스 : $740,000 방 3 화 2 마루 리세스 라잇, 예쁘게 단장한 단층집, 세리토스 하이도보, 도서관 도보거리
라팔마 : $519,000 방 3 화 1.5 부엌 리모델, 하이실링 타운홈 좋은 가격 케네디 하이